Storytelling by Extended Stories

더 길고 자세한 이야기로, 더 높은 레벨의 수업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언어 노출을 통해 학생들의 언어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이해력과 상상력을 증진시켜 줍니다.

페이지 마다 읽은 내용에 관한 사실과 의견을 묻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over/Introduction

When Wilf's dad decided to have a barbecue party in the back garden, things didn't quite go as he planned.
Cooking sausages over a smoky barbecue wasn't the children's idea of fun especially when things began to go wrong and it started to pour with rain.
The two Dads enjoyed themselves once they got the charcoal to light but the children had never seen sausages quite like the ones the dads cooked.

윌프의 아빠가 뒷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려고 하셨을 때 일이 계획대로 잘 풀리지 않았어요.
연기가 나는 숯불 위에서 소시지를 굽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재미도 없었고, 거기다가 일도 제대로 안 풀리고 비까지 오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둘은 숯에 불을 붙이면서 즐기셨지만, 아이들은 지금까지 그런 소시지는 본적이 없었지요.

Page 1

Wilf's dad wanted a party. What he really wanted was one of those outdoor parties called a barbecue.
'What is a barbecue?' asked Wilf.
'You know,' said Dad.' It's when we cook things like sausages and beefburgers on hot charcoal outside in the garden.'
'And we can bake potatoes and cook nut cutlets for people like me since I don't eat meat,' said Wilf's mum. 'It sounds great,' said Wilf.
Wilf's dad began at once. **He put up some lights,** and Wilf helped.
'I don't know we had these pretty lights,' said Wilf.
'I borrowed them from a friend,' said Dad.

윌프의 아빠는 파티를 열고 싶었어요. 아저씨는 바비큐라고 불리는 야외 파티가 하고 싶었지요.
"바비큐 파티가 뭐예요?" 윌프가 물었어요.
"너도 알잖아. 정원에서 뜨거운 숯불 위에 소시지나 햄버거 고기를 굽는 것이지." 아빠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나같이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감자를 굽거나 땅콩 커틀렛을 만들 수도 있단다." 윌프의 엄마가 말했어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윌프가 말했어요.
윌프의 아빠는 단숨에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불을 피웠고 윌프는 아빠를 도왔답니다.
"이렇게 예쁜 불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윌프가 말했어요.
"친구에게서 빌렸단다." 아빠가 말했어요.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What is a barbecue? 바비큐가 무엇이지요?

Why is it fun to eat outdoors? 왜 밖에서 먹으면 재미있나요?

Page 2/3

Wilma and Dad made a barbecue out of bricks. It took more bricks than they thought to build it. The

first time they tried they went wrong and had to start again. They were still building it as **Wilf and Mum took the food outside.**

'Hurry up,' laughed Mum. 'The party will have started and you'll still be building the barbecue.'

'Who's coming to the barbecue?' asked Wilf.

'Biff, Chip, and Kipper, and their Mum and Dad,' said Mum.

'Hooray,' said Wilf. 'This is going to be fun.'

'Mind what you're doing with that carrot salad,' said Mum.

윌마와 아빠는 벽돌로 바베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벽돌들이 필요했어요. 첫 시도에 잘 안 돼서 다시 시작해야 했답니다. 윌프와 엄마가 음식을 갖고 나올 때까지도 바베큐를 만들고 있었어요.

"빨리 해요." 엄마가 웃었습니다. "그러다가는 파티가 시작할 때까지 바비큐만 만들고 있겠어요."

"바비큐 파티에 누가 오지요?" 윌프가 물었어요.

"비프, 칩, 키퍼와 부모님들이 오시지." 엄마가 대답했어요.

"야호! 재미있겠다." 윌프가 소리쳤어요.

"니가 지금 만들고 있는 당근 샐러드에나 신경 써라." 엄마가 말했어요.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What sort of food do you like eating outdoors? 밖에서 어떤 음식을 먹기 좋아하지요?

Why was Wilf pleased with when he knew who was coming to the barbecue?

바비큐 파티에 누가 오는지 알고 윌프는 왜 기뻐했나요?

Page 4/5

When Biff, Chip and Kipper arrived with their Mum and Dad the barbecue still wasn't ready so **everyone helped.**

Biff and Chip's mum had brought everyone's favourite pudding and the children helped to carry out the last of the things for the barbecue.

Meanwhile, **the dads lit the fire.** The trouble was they found it quite tricky to get the charcoal to light. They took it in turns to blow on it, but it was hard work.

비프, 칩, 키퍼가 부모님과 도착했을 때도 바비큐가 준비되지 않아서 모두들 도왔습니다.

비프와 칩의 엄마는 모두가 가장 좋아하는 푸딩을 가지고 오셨고 아이들은 바비큐에 필요한 나머지 물건들을 옮기는 것을 도왔어요.

그 동안 아저씨들은 불을 폈어요. 문제는 숯불에 불을 붙이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던 것이지요. 돌아가면서 불어보았지만 정말 힘든 일이었답니다.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What do you think is everyone's favourite pudding? 모두가 제일 좋아하는 푸딩이 무엇일까요?

What is your favourite pudding?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푸딩은 무엇이지요?

What is charcoal? Why is it difficult to light? 숯불이 무엇이지요? 왜 불을 붙이기 힘들까요?

Page 6/7

The dads blew the charcoal for ages and ages and just when they thought they'd got it right, **the fire went out. The children were hungry.**

'When's supper?' asked Wilma. 'We're all starving.'

'Everything else is ready,' moaned Wilf. 'All we need now is the barbecue to cook the food on.'
'Try and be patient,' said Wilma's dad. 'We're going to get the fire going any minute. Then the delicious taste of gently barbecued sausages will make all the waiting worthwhile.'
'I hope he's right,' whispered Biff.

아저씨들은 끊임없이 숯불에 바람을 불었어요. 막 불이 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불은 다시 꺼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파졌어요.
"저녁은 언제 먹지요?" 윌마가 물었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다른 것은 다 준비되었는데." 윌프가 투덜거렸어요. "이제 음식을 구울 바비큐만 있으면 되는데."
"조금만 참아봐." 윌마의 아빠가 말했어요. "이제 금방 불이 붙을 거야. 잘 구워진 바비큐 소시지를 먹어보면 기다린 보람이 있을 거야."
"제발 그래야 할 텐데." 비프가 속삭였어요.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How can you see that the dads are having trouble lighting the fire?

아빠들이 불을 붙이는데 어려워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What are the mums doing? 엄마들은 무엇을 하고 있지요?

Page 8/9

The dads lit the fire again. This time they used lots of wood and sticks with charcoal so that the fire began to blaze and give out a good deal of smoke.
'Well,' said Wilf's dad.' We have lift-off! Now let's get the food organised.'
At that moment **it began to rain** and everything had to be carried inside the house. 'Hurry up, everyone.' called Biff and Chip's Mum, 'I don't like rain in my coleslaw. 'Wilma's mum sensibly switched off the coloured lights and unplugged them and Wilf took them in.
Meanwhile the dads rigged up a sort of shelter to keep the rain off the barbecue.
'The fire's going nicely. We'll soon have everything cooked,' called Dad.

아빠들은 다시 불을 붙였어요. 이번에는 많은 나뭇가지와 막대기를 숯과 함께 태워서 불은 붙었지만 연기가 많이 났어요.
"자," 윌프의 아빠가 말했어요. '이제 불이 붙었다! 음식을 구울 준비를 하자꾸나."
바로 그 순간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모든 것을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모두들 빨리요." 비프와 칩의 엄마가 불렀어요. "내 샐러드에 빗물이 들어가는 것이 싫어요." 윌마의 엄마는 조심스럽게 반짝이는 불을 끄고 코드를 뽑았고 윌프가 그것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 동안 아버지들은 바비큐에 비가 떨어지지 않도록 천막을 만들었어요.
"불이 잘 타고 있구나. 곧 음식을 다 구울 수 있을 거야." 아빠가 말했어요.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Where will the party have to take place now? 이제 어디서 파티를 해야 하나요?

Were the dads sensible to keep on trying to make the barbecue go?

아빠들은 바비큐 불이 잘 타게 하려고 계속 조심하며 노력했나요?

What are the mums doing? 엄마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Page 10/11

The rain fell steadily, but under their shelter, **the dads cooked sausages** not even seeing that everyone else had gone indoors.

The children were fed up. They didn't know which was louder-the sizzling of the sausages or the hiss and splash of the falling rain.

'I wish they'd come inside and use the grill,' said Wilma, as the children looked out the pouring rain.

'I know, I'm even more starving than ever,' said Kipper.

비는 계속 내렸지만, 천막 안의 아빠들은 다른 사람들이 집안으로 들어 간 것도 모른 채 소시지를 굽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지쳤어요. 소시지 굽는 소리가 더 큰지 빗소리가 더 큰지 알 수 없었어요.

"안에 들어와서 그릴에 구웠으면 좋겠는데." 아이들과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면서 윌마가 말했어요.

"맞아, 정말 이렇게 배고픈 적은 없어." 키퍼가 말했어요.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How can you tell that the dads are enjoying themselves?

아빠들이 바비큐를 즐기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How can you tell that the children are not?

아이들은 즐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What are the mums doing? 엄마들은 무엇을 하고 있지요?

Page 12/13

At last the dads called the children down to the barbecue. 'Bring a plate each,' they called. 'The sausages are ready, so 'grub's up'!'

The children put on their cagoules and went out in the rain to the barbecue. There was so much smoke under the little shelter that the dads could hardly see because their eyes were running.

When Biff looked at the sausages Dad had given her, she couldn't believe her eyes. **The sausages** were **burned**. They looked like black wizened sticks. **'Yuk!' said Chip.**

드디어 아버지들은 아이들을 바비큐 하는 곳으로 불렀습니다. "각자 접시를 가지고 오렴. 소시지가 다 되었으니 얼른 먹어라!"

아이들은 재킷을 입고 비가 내리고 있는 바비큐 쪽으로 갔어요. 작은 천막 안에는 연기가 너무 가득 차서 아빠들은 눈물 때문에 앞을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비프의 아버지가 준 소시지를 보고 비프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 타버렸거든요. 까맣게 그을린 나무 막대기 같았어요. "우웩!" 칩이 말했어요.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Why had dads burned the sausages? 아빠들은 왜 소시지를 다 태웠나요?

What did the children think of the dads' cooking? 아이들은 아버지들의 요리를 어떻게 생각했나요?

Page 14/15

Suddenly the roof of the little shelter split with the weight of the rain that had collected in it. The water splashed down with a tremendous whoosh. **Oh no! The dads got wet.** In fact, they were soaked to the

skin and the barbecue was ruined.

천막 위에 고여 있던 빗물의 무게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천막이 갑자기 찢어졌어요. 물은 엄청난 소리를 내며 떨어졌지요. 이런! 아빠들은 다 젖었습니다. 속옷까지 다 젖었고 바비큐는 실패했지요.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How did the accident happen? 어떻게 사고가 났나요?

What do you think the mums said about it? 엄마들이 뭐라고 할까요?

What will have to happen now?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Page 16

The dads dried themselves and everyone laughed at what had happened.
'It was a shame, really,' said Wilf's dad. 'We were just getting the hang of cooking on the barbecue. The first sausages were a little overdone, but the next lot would have been perfect.'
'Never mind,' said Wilma's mum. 'The children are hungry and I know the perfect place for a party on a rainy evening like this.'
'Hooray!' said the children.

아빠들은 몸을 말렸고 모두들 방금 일에 대해 웃었지요.
"정말로 안타깝다." 윌프의 아빠가 말했어요. "이제 겨우 바비큐에서 굽는데 감을 잡았는데. 처음 구운 소시지들은 조금 많이 구워졌지만 그 다음 것들은 완벽하게 구울 수 있었는데."
"괜찮아요." 윌마의 엄마가 말했어요. "아이들은 배가 고프고, 제가 오늘같이 비 오는 날에 파티하기 좋은 곳을 알지요."
"야호!"라고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How did the evening end happily? 어떻게 파티가 무사히 끝났나요?

Have you ever eaten in a restaurant like this? 이런 식당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있나요?